재조일본인의 가정담론 형성과 식민지주의*

- 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1915)를 중심으로 -

송 혜 경**

Ⅰ. 서론
Ⅱ. 미디어 이벤트로서의 가정박람회와 '가정'
Ⅲ. 식민지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와 식민지주의
Ⅳ. 재조일본인의 가정담론의 형성
Ⅴ. 결론

Ⅰ. 서론

제국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가정은 어떻게 자리매김되었으며 또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무타 가즈에(牟田和恵)는 우리들이 현재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족은 예로부터 일정한 의미규정을 가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적인 장치"[1]라 한다. 그렇다면 '한국 병합'으로부터 5년이 지나 식민통치의 성과를 과시하는 시점에서 가정은 어떻게 이용되었을까. 또 재조일본인 사회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을까.

1915년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정박람회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201518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일본근대문학 전공

1) 牟田和恵, 『戦略としての家族』, 新曜社, 1996, p.1.

(1915.9.11～10.31)가 『경성일보(京城日報)』본사(현 태평로)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총독부가 식민통치의 5년간의 실적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경복궁에서 개최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와 같은 시기에 열린 것으로, "시정 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개최에 임"하여 "시대에 적합한 가정 및 가정생활의 실제를 보여주고" 이로써 "가정취미의 증진을 도모"[2]하려는 것이었다. "조선물산공진회" "사업에 협조하고 그 성황에 색채를 더하는 의미에서" 신문사가 기획한 '미디어 이벤트'였던 것이다. 가정박람회는 "공진회 관람에 간 사람들은 꼭 함께 봐주기(共觀)"를 바란다[3]는 주최 측의 희망과도 맞물려서 "공진회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길에 들른 사람도 있어" 엄청난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같은 해 『조선공론(朝鮮公論)』에서는 타 언론사의 기획 이벤트이기 때문인지 가정박람회에 관한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월부터 처음으로 여성을 기자로 채용[4]하며 이후 <부인방문기(婦人訪問記)>, <나의 처(吾輩の妻)>, <가정페이지>, <가정위생>, <부인의 고문(顧問)> 등의 연재물을 신설하고 가정에 관한 다양한 기사를 소개하며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조선에서 1915년은 바로 '가정의 해'였던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가 개최되기 4달 전에 도쿄의 우에노(上野)에서 국민신문사가 주최가 되어 『국민신문(國民新聞)』창간 25주년을 기념하는 가정박람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경성일보』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도쿠도미 소호(德富蘇峰)는 자신이 경영하는 『국민신문』주최 행사를 조선에서 다시 재현하였다. 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는, 일본에서 "가정박람회 이래 '가정적'이라는 글자를 도처에서 볼 수 있을 정도"[5]

---

2) 波形 昭一, 木村 健二, 須永 德武『社史で見る日本経済紙 植民地編 第2巻』, ゆまに書房, 2001, p.28.

3) 『京城日報』, 1915.9.5. (이하 본문 안에서 인용할 경우 『경성일보(京城日報)』는 『경』으로, 『조선공론(朝鮮公論)』은 『공』으로,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는 『급』으로, 『매일신보』는 『매』로 표기한다.)

4) 『朝鮮公論』, 「入社の辭」 3-1, 1915.01.

5) 『國民新聞』, 「家庭的」の大流行」, 1915.5.21.

의 유행을 일으킨 『국민신문』의 가정박람회를 답습한 것으로 그 "재판"[6] 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의 가정박람회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어떠한 의도로 기획되었을까. 또한 재조일본인 사회 특히 재조일본여성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가정을 재정립해 나가고자 하였을까.

조선의 가정박람회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축분야에서 다루어져 박람회에 전시된 가정모형을 통해 이상적인 주거의 특성과 주거관을 연구[7]하거나 주택 자체의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모델하우스의 효시[8]라고 강조되고 있다. 건축분야 외의 연구로 「한 · 일 근대문화 속의 <가정>－1910년대 가정소설, 가정극, 가정박람회를 중심으로－」[9]를 들 수 있다. 신발명품으로서의 가정은 가정소설, 가정극, 가정박람회를 통하여 '근대'의 생활규범을 대중에게 알려주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정박람회의 소개와 피식민자 사회, 조선의 반응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가정박람회가 식민주체가 제시한 기획이라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어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새로운 볼거리로서 파악되어 연구되었다.

한편 가정박람회의 기획 주체가 식민자 일본인이었음을 시야에 넣은 연구로 김명선의 「1915년 경성 가정박람회 전시주택의 표상」은 "경성 가정박람회가 식민모국의 전시를 식민지에서 가져와 전시한 정치적 기획"[10]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 또한 야마지 가쓰히코(山路勝彦)는 가정박람회가 동화정책의 실시를 기획하는 총독부의 통치방침에 합치하는 기획물[11]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가정박람회 개최 당사자인 재조일

6) 이형식, 「경성일보 · 매일신보 사장 시절(1914.8-1918.6)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史叢』 87, 2016, pp.168-170.
7) 양세화, 유현주, 온난순, 「일제강점기 가정박람회에 나타난 이상주거」, 『대한가정학회지』 47-1, 2009.
8) 백지혜,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출판사, 2005, pp.19-37.
9) 홍선영, 「한 · 일 근대문화 속의 <가정>－1910년대 가정소설, 가정극, 가정박람회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22, 2004.8.
10) 김명선, 「1915년 경성 가정박람회 전시주택의 표상」, 『대한건축학회』 28-3, 2012.3, p.156.
11) 山路勝彦, 『近代日本の植民地博覧会』, 風響社, 2008, pp.120-123.

본인 사회의 참여와 반응, 기획 의도[12]나 특히 재조일본인 여성의 역할까지는 시야에 넣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시 일본어 신문잡지의 가정박람회, 가정 관련 기사를 고찰하여 '정치적 장치'로서의 '가정'을 매개로 하여 식민지 조선 뿐 아니라 재조일본인 사회로 향하는 식민 권력의 의도와 욕망을 읽어내고자 한다. 특히 재조일본인 여성의 참여와 반응을 살펴보고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형성된 가정담론과 식민지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미디어 이벤트로서의 가정박람회와 '가정'

"박람회의 시대는 동시에 제국주의 시대였다."[13] 서구열강은 박람회를 통해 식민지 지배의 실적을 과시하였고 기술의 발전을 국가발전으로 즉 제국 확장의 길로 일체화시키면서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였다. 박람회는 제국주의 시대와 더불어 전개된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박람회 개최 열기를 답습하면서도 "식민지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14] 있다는데 서구제국과 그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는 일본본국, 식민정권, (피)식민자 사회가 각자의 목적을 두고 엮어낸 이벤트였다. 본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가정박람회의 특징과 재조일본인의 역할과 개최 의도를 고찰하기 위해 그 모태가 되

12)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의 연구에서 피지배인의 체험에만 주목한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에서의 일본인 사회의 조선물산공진회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 주목한 연구, 이동훈,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와 식민자사회－'무단정치'하에서의 민관공동 개최(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会と植民者社会一「武断政治」下における官民共同の催し)」(『東アジア近代史』18, 2015.3)는 그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3) 요시미 순야 지음, 이태문 옮김, 『근대의 시선 박람회』, 논형, 2003, p.210.

14) 山路勝彦, 앞의 책, p.3.

었던 국민신문사의 가정박람회는 어떠한 배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왜 이 시기 가정에 주목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박람회가 개최된 것은 1877년의 일이다. 메이지(明治) 시대의 박람회는 내국권업박람회의 성격을 띤 것으로 "문명개화나 식산흥업(식산흥업)을 목적으로 개최"되어 "구경거리나 오락성은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이후가 되면 박람회는 "오락화의 경향과 병행해서 점차 생산의 장보다 소비의 장에 대한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된다"[15] 즉 '부인' '어린이' '가정'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가 등장하고 그 주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아닌, 백화점과 전철, 신문사와 같은 민간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신문사 주최의 박람회는 '가정'을 테마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일본에서는 비교적 선구적인 가정박람회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국민신문』의 가정박람회는 "『국민신문』 창간 25년 기념 가정박람회 1915년 5월 1일부터 6월 하순까지 우에노(上野)공원 시노바즈지반(不忍池畔)에서 개최"(『국』 1915.3.11)라는 신문 1면에 게재된 대형 선전 문구를 시작으로 지면에 등장한다. 이후 『국민신문』은 「가정박람회」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가정박람회의 준비 상황과 출품을 독려하는 기사를 연재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게다가 명예회장 히라타 도스케(平田藤助)를 시작으로 가정박람회의 임원과 찬조원의 이름과 직업을 1면에 대대적으로 열거하며 "그 지위와 직업이 어떠한 가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의 흥미를 끄는 문제"(『국』 1915.3.20)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서인지 박람회장은 개장 첫날에만 입장객 총 2만8천여 명(『국』 1915.5.3)을 기록할 정도의 "전대미문의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고 "일상 업무에 방해" 되어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11일부터는 야간개장도 시작하여 "불야성을 현출"(『국』 1915.5.10)하고 있었다. 게다가 "국민신문사 주최의 가정박람회 개최를 기회로 발행"하여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그 방면의 대가(大家)에게 의뢰"하여

15) 요시미 슌야, 앞의 책, pp.15-17.

만든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제시한 모범서라는 소호의 서문으로 시작하는 『이상의 가정(理想の家庭)』[16]은 불과 2개월여 만에 5판이 출판될 정도였다. 가정박람회는 그야말로 미디어의 빅 이벤트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국민신문사는 왜 가정박람회를 준비했을까. 그 개최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러한 미디어 이벤트로서의 가정박람회의 개최 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문명이 진보함께 따라 사회의 변화에 동반하여 가정의 실제생활에 관한 문제는 드디어 복잡해졌다. (중략) 시대에 적합한 가정과 가정생활을 이론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박람회는 기획되었다. 가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넓은 것처럼 가정박람회의 범위도 상당히 넓다. 홀로 경제상의 것에 머물지 않는다. 가정의 취미오락에 관한 방면, 위생에 관한 방면, 교육에 관한 방면도 모두 마찬가지로 가정박람회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가정박람회는 부인에게만 흥미가 있고 또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개 가정의 일원인 사람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여기에 오라. 이상적인 가정의 모범을 보아야한다. (후략) (『국』 1915.3.16)

위의 인용에서 “문명의 진보”와 “사회의 변화”에 동반하여 가정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가정을 문명 발달의 바로메타로 여기고 있다. 또한 가정이 의식주에 한정되지 않고, “취미오락, 위생, 교육” 등의 방면으로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복잡”해졌다고 하면서, “시대에 적합한 가정과 가정생활”에 맞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기획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가정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이상적인 가정상의 제시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시대는 무엇이고 왜 이 시기 미디어는 가정을 테마로 이벤트를 기획했을까.

일본의 종합잡지에 가정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87년(메이지 20)전후이다. 이 시기 지상에서는 가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가정이 활발하게

16) 國民新聞社 編, 『理想の家庭』, 國民新聞社, 1915.

논의되었다. 특히 『여학잡지』에서는 「일본의 가족(日本の家族)」을 연재하면서 "즐겁고 단란"한 가족의 이상을 선구적으로 논하고 있고 그 2년 후에는 "최근 홈이라는 말은 보통처럼 되었다"고 하면서 수년전 "처음으로 홈이라는 말을 크게 선전한 이후로 세월은 이 작은 씨를 발육하여 지금은 이르는 곳마다 그 소리가 울린다."[17]고 하여 가정, 즉 홈의 출발을 선전하고 있다. 이후 가정이라는 말은 상당한 기세로 유포되어 1890년대에는 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잡지가 연이어 간행되었다. 예컨대 본 가정박람회를 기획한 도쿠토미 소호의 『가정잡지』(1892-1898)나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의 『가정잡지』(1903-1909) 등이 발간되었는데, 이들 잡지는 가정을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설정"하고 "이에가 아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가정"[18]을 이상으로 하여 가정을 자리 매김하였다. 또한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면서 교육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도 일본의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가정의 양상을 "문명의 가정"이라 이름 짓고 서양말인 "스위트 홈"을 차용하면서 "행복하고 유쾌"한 가정의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문명주의자인 후쿠자와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 가정이 "외부적으로 가족 공동체와 친족집단으로부터 독립"[19]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메이지 시대의 이러한 가정의 보급, 확산은 "반드시 실체로서의 가정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보다 앞서 담론으로서의 가정이 먼저 등장한 것"[20]이었다. 즉, 이상적인 가정을 논하는 주장과 계몽이 난무했으나 이는 실태로서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용 지식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정의 개념은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어 "가계(家計)의 대부분을 봉급"으로 하는 신중간층이라는

17) 「細君內助の弁(上)」, 『女學雜誌』 224号, 1889.8.2.
18) 이지영, 「일본에서의 가정개념의 전파－메이지 후기에서 다이쇼까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46호, 2010, p.108.
19) 송혜경, 정병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가족론」, 『일본연구』 21권, 2014, p.73.
20) 小山靜子, 『家庭の生成と女性の国民化』, 勁草書店, 1999, p.31.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었다. 이들 신중간층의 출현은 가정이 "생산기능을 잃고 소비 재생산의 장"[21]으로서 기능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이들은 생활 개선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들 계층은 이제까지 담론으로 제기되던 가정을 실체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신중간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형태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개선, 실질적인 형태로서의 가정, 새로운 가족형태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가 가정박람회의 형태로 구현된 것이었다. 가정박람회는 바로 가정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가정박람회의 내용은 매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다.

> ① 시대에 적합한 가정 및 가정생활을 이론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제(實際) 보여주기(示) 위해 가정박람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중략) 건전한 가정이 무엇인지 알고, 시대에 맞는 가정생활의 실제(實際)를 배워서 이로써 사회국가의 진보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내가 희망하는 바이다. (『국』 1915.3.16)
>
> ② 이상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상의 가정주의만으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를 실용(實用)하고 활용(活用)하고 이용(利用)하고 선용(善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술이 중요하다. (후략)[22]

①에서는 가정박람회의 기획 목표가 가정에 대해 "이론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제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가정생활의 실제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생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박람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발간된 『이상의 가정』에서도 이상적인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주의"와 같은 이론적인, 관념적인 것으로는 쓸모가 없고 "실용", "활용", "이용", "선용"할 수

21) 小山靜子, 위의 책, p.59.
22) 國民新聞社 編, 앞의 책, p.8.

있는 실질적인 가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한다. 『국민신문』의 가정박람회는 이제까지 담론으로써 논해지던 가정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가정에 주목하였고 이를 눈으로 <보여준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확산시키고자 했다.

일본 본국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는 중산층의 확대로 인해 발생한 수요와 주부 계층의 위상을 고려하여 가장 화제가 되는 가정을 테마로 하고 있다. 또 그 내용은 가정이 탈관념화되어 눈으로 확인하는 가정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미디어 이벤트인 것이다. 이러한 본국 일본에서의 가정박람회는 식민지 조선에서 다시 재판된다. 그렇다면 식민지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국민신문사의 가정박람회와 어떠한 상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겠다.

Ⅲ. 식민지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와 식민지주의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는 조선 통치이후 5년간의 산업 발전을 과시할 목적으로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의 성황을 더하기 위해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공동으로 개최(1915.9.11~9.26)되었다. 국민신문사의 가정박람회와 경성일보사의 가정박람회는 어떠한 상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를 통해 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는 많은 부분 국민신문사에서의 박람회의 내용과 흥행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 기획의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文明進步에 從하고 社會變化에 伴하야 家庭의 實際生活에 關한 문제는 漸漸

> 複雜한지라. (중략) 이 시대에 適合한 家庭 及 家庭의 生活을 理論上으로 說明치 안이하고 實際로 目擊한 實際를 示하기 위하야 家庭博覽會를 企劃한 것이다. (중략) 家庭의 一員된 자는 男女老少를 勿問하고 거개 이곳에 來하야 理想의 家庭의 模範을 發見할지로다. (『매』 1915.7.20)

위의 인용은 경성에서의 가정박람회가 개최되기 4달 여 전에 『매일신보』에 게재된 가정박람회의 개최목적이다. "문명진보에 종(從)하고 사회변화에 반(伴)하야" 가정의 실제생활에 관한 문제는 점점 복잡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박람회에 참가하여 "이상적인 가정의 모범을 발견"할 것을 권하고 있다. 국민신문사에서 역시 가정박람회의 개최 취지를 미리부터 선전했었는데, 위의 인용의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 기획 의도는 국민신문사의 가정박람회의 개최 취지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으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전시물도 가스나 전기 등의 근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부엌 등을 전시하여 물질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달성한 근대적 성과를 보여주면서, 또 국민신문의 가정박람회에서 전시되었던 일본적인 장식, 일본 전문가의 고안에 의해 개발된 것, 일본 전통에서 유래한 것들을 그대로 전시하며 선전하였다. 게다가 홍행 전략에 있어서도 애독자 우대권, 복권, 변장자 찾기, 가정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국민신문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국민신문사 가정박람회의 목적, 전시물, 내용, 홍행전략까지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가정박람회』는 국민신문의 가정박람회를 재현하고 있으면서도 일본과 일본의 가정을 표준으로 하여 모범적인 것, 배워야할 것으로 이상화시키고 있다.

> 지방 조선인에게 일본의 모범 가정, 이상적인 가정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은 내지인의 지위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아주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가정박람회는 질적으로 절호의 것 (『경』 1915.9.6)

위의 인용에서처럼 경성일보는 경성에서 개최되는 가정박람회가 조선인에게 일본의 "모범 가정" "이상적인 가정"의 실례를 보여 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야할 표준과 이상으로서 일본 가정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조선 가정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① 이제 내선인 공동일가로서 국가 백 년의 대계를 세우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또 상호간의 인정풍속이 점차 근접하고 결국에는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단서로서 우선 가정으로부터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인에서는 내지인 가정의 우량한 점을 취하고 (『경』 1915.9.8)

> ② 실로 조선의 가정에서 개량해야 할 점은 상당히 많은데 우선 무엇보다 먼저 착수해야 하는 것은 위생이다. 조선의 가정만큼 위생 사상이 빈약한 곳이 없다. 따라서 이제 가정박 중 모범적인 부엌이 2개 있는데 이를 보고 위생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완전하게 해야 한다. (『경』 1915.9.14)

조선과 일본의 "공동의 일가"가 되어 "상호간의 인정풍속이 점차" 가까워졌지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인의 "가정으로부터의 개량"이 우선적으로 취하여져야 하고 그 방향은 일본 "내지인 가정의 우량한 점"(①)을 배우고 모방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조선 가정에서 "위생" 문제는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가정박람회의 전시품인 일본 부엌을 보고 배(②)움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하는 것이었다. 조선 가정의 위생 문제를 제기해서 이를 개량해야할 주요 요소로 파악한 것은 이번 가정박람회가 처음은 아니었다. 일본어 잡지에 게재된, 조선을 처음 본 후의 인상에 대해 쓴 우당생(愚堂生)이라는 필명의 기사는 "위생 사상이 전무하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가혹"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오줌을 창에서 길가로 버리

거나 냄비 하나를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은 만풍(蠻風)"[23]은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하는 요소로 거론하며 조선의 위생에 대한 의식이 전무함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이른 시기 조선에서 간행된 일본어 잡지 『조선』은 창간호부터 「한인(韓人)의 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하여 조선 가정의 불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실내의 창을 적게 하고 출입구도 대부분은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하도록 만들어졌다. 적은 창과 문을 열어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는 항상 어둡고 냄새가 가득하다. 특히 실내에는 변기를 반드시 두고 있어 남녀 주객 모두 실내에서 방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실내의 불결불쾌는 거의 내가 참을 수 없는 바이다.[24]

조선의 가정 상황을 실체적인 가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위의 인용에서 조선의 가정은 실내에서 방뇨하고 구조적으로 냄새나고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설명되고 있다. 식민화되는 초기부터 조선의 가정은 더러움과 불결의 원천으로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조선 가정의 개량, 개선은 급선무였고 이는 가정박람회의 주요한 목표가 되었다. 예컨대, 조선인 실업가로서 유명한 홍모 씨가 가족들과 함께 가정박람회를 방문했는데, 가족들에게 "일본인 가정과 같이" 하자고 "누누이 주장했음에도 조금도 긍정하지 않"던 가족들이 가정박람회를 본 이후 이를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25]고 하여 박람회 내관 이후 변화된 조선인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 가정의 이상화를 통해 조선 가정의 열악함을 인식시켜서 조선 가정을 개량, 개선의 대상으로 만드는 본 박람회의 의도와 그 효과를 잘 선전한 것이다. 또한 『경성일보』는 남작 고토 신페이 씨가 가정박람회 방문 이후 "이것을 조선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좋다."고 하면서 가정

23) 愚堂生, 「余の初めて見たる朝鮮」, 『朝鮮』 37, 1911.3.
24) 旭邦生, 「韓人の家庭」, 『朝鮮』 1-1, 1908.3.
25) 『京城日報』, 「百日說法するよりも一目家庭博を見よ」, 1915.9.16.

박람회가 "조선인에게 신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26] 좋은 기회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가정박람회가 조선인에게는 조선의 열등함을 인식하고 개량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기회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가정박람회의 대상에 식민지의 조선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일본에서의 가정박람회와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의 차이는 일본의 가정 담론이 조선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도 그 차이를 미묘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 가정은 항상 가옥을 따라가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라'합니다. (중략) 그 의미는 가옥이라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근본으로 없으면 안 되는 중대한 것임은 물론인즉 가정의 유쾌와 유쾌치 못함은 그 거주하는 가옥이 어떠함에 따라 관계되는 일이 심히 많습니다. (중략)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완전한 가옥이 있어야 한다는 한 가지 조목을 더 넣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27]

위의 인용은『매일신보』에 실린 가옥의 개량을 통해 원만한 가정을 이룬다는, 물리적인 집의 개량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의 일부이다.「가정의 원만은 주택으로부터」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가정의 유쾌와 유쾌하지 못함"은 "거주하는 가옥"에 달렸다고 하여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옥의 개량이 필요하며 "완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한 가옥"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미 국민일보사에서의 발행한 『이상의 가정』의「주택」에 집필된 내용의 번역이었다. 즉 이 글의 집필자인 이토 주타(伊藤忠太)는『이상의 가정』에서 "소위 가정의 유쾌 불유쾌가 그 주거하는 가옥이 어떠한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면서 "완전한 가정을 만드는 조건은 완전한 주택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 그의 이러한 주장이 번역되어 실린 것이다. 이어지는 이토의 이 글은 일본 구식 가옥의 결점을 설명하면서 가옥의 개량을 통한 일본 가정의

---

26)『京城日報』,「後藤男爵中村是公氏二十九日午前家庭博の珍客」, 1915.9.30.
27)『매일신보』,「가정의 원만은 주택으로부터」, 1915.8.21.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28] 일본에서의 일본 가정의 개량의 필요성을 밝히는 이 글은 위의 인용에서처럼 『매일신보』에 번역되어 기사화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항상 살림살이 하는 조선의 구식 가옥은 남녀노소가 단란하게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는 데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 심히 많은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바이올시다."라고 하여 조선의 구식 가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 주택 개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측의 주장은 조선재래의 주택이 개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일본 구식가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적한 건축 전문가의 주장은 '조선의 구식 가옥'의 문제점으로 "치환"[29]되어 조선의 가옥, 가정은 개량, 계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가정박람회는 일본에서의 가정박람회의 전시물, 개최 취지, 흥행 전략을 같이 하면서도 일본의 가정을 표준으로 하여 이상화시킴으로서 조선인에게는 조선 가정의 열악함을 확인하게 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본 가정박람회에 대해 재조일본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특히 재조일본인 여성들은 본 가정박람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이 점은 본 가정박람회를 일본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와 가장 구별되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경성일보』는 가정박람회가 개최되기 닷새 전에 「가정박람회 개최와 경성명류부인의 감상」을 두 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당시 재조일본인 명사 부인들의 사진을 나열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정박람회에 대한 감상을 인터뷰하여 싣고 있다.

---

28) 『이상의 가정』에 실린 이토 주타의 논고 「주택(住宅)」은 1.가정과 가실(家庭と家室), 2.현재의 가옥, 3. 소위 가옥 개량, 4.구식 가옥의 결점, 5.개량의 방침을 그 내용으로 하여 일본 가정 개량의 필요와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29) 김명선, 앞의 논문, p.162.

① 이번 경성일보사에서 개최하는 가정박람회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라서 기뻐하며 그 개회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듣기에도 처음이라 보게 된다면 아주 놀랄만한 유익한 여러 가지 것들에 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바[久芳]인사과장 부인 조코[銚子], 『경』 1915.9.6)

② 이번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의 개회와 동시에 귀사에서 대규모의 가정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진회의 사업에 대해 일대 광채를 더하(添)기 위함임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크게 이익 있는 훌륭하고 또한 흥미 깊은 행사입니다.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일 년 중 가장 기후가 좋은 가을의 하루를 가족이 함께 놀러오는 게 좋을 것입니다. (동아연초제조소 부인 가토 노리코[加藤德子], 『경』 1915.9.6)

③ 가정박람회는 진정으로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가정의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엌이나, 방 장식이나, 분만 시의 주의점이나 산모의 방이나 연구하면 할수록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보기만 할뿐 실행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행 이사부인 기무라 리우코[木村リウ子], 『경』 1915.9.6)

재조일본인 여성들이 가정박람회의 "개회날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가족과 함께 방문할 생각이"라든지, "훌륭한 행사"라고 전면에 나서서 가정박람회의 개최에 찬성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성일보사 역시 재조일본인 여성들의 사진과 근황이나 일과를 소개하며 일본인 가정과 함께 이들 일본인 부인을 이상화시킨다. "조선의 나쁜 풍속습관은 내지인의 지도 특히 가정의 일은 내지 부인의 힘으로 개량해서 간편하게 편리하게 사치스럽지 않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경』 1915.10.6.)고 하여 조선 가정의 개량이 일본 부인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며 일본 부인은 조선의 가정과 부인을 계몽하는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는 가정을 통하여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확

인하는 장이었다. 일본의 근대화를 시각적인 실제를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조선인들로 하여금 조선의 열악함을 확인하고 조선인들에 대한 제국일본 지배의 정당화를 인식시켰다. 이러한 장에 재조일본인 여성은 이상화된 존재로서 자리매김된다. 조선인에게는 일본 부인을 이상화시키고 일본 부인을 조선을 계몽할 식민자로서의 위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Ⅳ. 재조일본인의 가정담론의 형성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가정박람회는 조선인들에게는 일본 가정을 모범으로 하여 조선가정의 열악함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가정과 일본인 여성들은 이상적인 모델로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한국병합 5년이 되는 이 시기 재조일본인 사회에 있어 가정박람회의 개최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1915년 병합 5년을 기점으로 일본어 신문과 잡지는 조선 5년간의 발전을 소개하고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을 모색하는 기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또한 5년의 시점에서 부인 및 가정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며 조선 유일의 부인잡지가 기획되기도 했다. 조선부인계사 발행의 「조선부인계(朝鮮婦人界)」가 그것인데, 그 선전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도 일한병합 이후 이미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오늘날 정치, 경제를 논하는 잡지는 있지만, 사회에 있어 중요문제라고 해야 할 부인 및 가정에 관한 잡지가 없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은 내지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식민지적 기풍이 있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인 및 가정에 관해 특히 연구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잡지를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기사는 조선 본위로 하여 가정

> 및 부인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더욱이 가정, 부인, 영매, 신랑신부의 사진 등을 게재한, 실로 재미있고 유익한 잡지입니다. (『공』 3-7, 1915.7)

위의 인용은 『조선공론』에 실린 "조선 유일의 부인잡지"라는 수식어로 표현된 「조선부인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 문구이다. 현재 잡지의 소재는 파악할 수 없지만, 「조선부인계」의 기획 의도를 보면 "일한병합 이래 이미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인 및 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잡지가 없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 또한 식민지적 상황에서 가정과 부인 문제는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부인을 독자로 하는 흥미 있고 유익한 잡지를 발행하겠다는 발행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가정과 부인이 일본어 미디어에 있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는 것이다. 또한 잡지의 방향성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모색되었다. 바로 1915년 『조선공론』의 여기자 채용이다. 『조선공론』의 여기자로 채용된 "부인기자 도리이 미치코(鳥井みち子)"는 「입사의 변(入社の辨)」에서 "조선공론 기자로서 내게 내려진 사명(社命)"은 화류계에 관한 기사에서 벗어나 "가정적인, 진정한, 적어도 여러분 부인들의 기관이 되고 지식의 교환을 도모하고 수양을 도와주고" 싶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부인과 관계가 적었던 본 잡지를 부인 사이에서도 흥미를 갖고 읽으실 수 있도록"[30] 하겠다는 포부 역시 드러내고 있다. 병합 5년에 임하여 여성 기자를 채용하며 가정적인 기사, 여성 관련 기사를 확대하여 재조일본인 여성까지 독자로 확보하겠다는 잡지의 방향전환이 읽혀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포부를 바탕으로 『조선공론』에는 여기자가 재조일본인 명사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집안 분위기와 부인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부인방문기(婦人訪問記)", 명사의 일터로 찾아가 명사에게 자신의 부인과 가정에 대해 듣는다는 "나의 처(吾輩の妻)"와 함께 "가정페이지(家庭ページ)", "가정위생(家庭衛

30) 婦人記者 鳥井みち子, 「入社の辭」, 『朝鮮公論』 3-1, 1915.1.

生)" 등의 연재물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가정박람회의 개최와 같은 시기 일본어 미디어에서는 가정과 부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 기사 중 부인방문기의 기사는 마치 가정박람회의 진열과도 같은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거실 사각에 지가이다나(違い棚)에는 아름다운 꽃꽂이와 인형과 몇 개의 족자와 장식 재료"가 "훌륭하게 진열"되어 있었다든지(『공』1915.2) "실내는 넓고 밝아서 야마토마치(大和町)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토식(京都式) 산이 그림과 같이 부드러운 봄기운"(『공』1915.6)을 드러내고 있다든지, "일본 방에는 유서 깊은 거문고(琴)"(『공』1915.9)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등, 일본 명사 가정을 방문에서 집안의 분위기나 장식 등을 동선을 따라가며 눈에 보이듯 묘사하고 있다. 가정박람회의 개최에 호응하며 펼쳐진 일본어 미디어 지면에서의 가정박람회인 것이다. 일본어 미디어는 가정박람회를 계기로 일어난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편승하여 가정과 부인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는 가정담론의 확산을 도모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가정박람회의 개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처럼 지면에까지 가정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까.

일본인의 조선으로의 이주와 재조일본인 사회의 구성은 시기별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식민화 초기에는 경제적인 한탕주의나 신분상승을 노리는 일시적인 이주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식민정책 하에서 이주의 목적이 임시적인 아닌, 장기적으로 변하고 식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식민관료나 회사원 등 화이트 컬러의 이주가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 '내지'에서 뿐 아니라, 재조일본인 사회에서도 가정 단위의 이주를 독려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31]하였다. 식민지에서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 가족이 함께 하는 조선으로의 이주가 적극 권장되었고 이는 식민

31) 『부녀신문(婦女新聞)』에는 「군국의 부녀(軍國の婦女)」가 연재되는데, 영국이 식민지 경쟁에서 성공한 것은 가정이 함께 식민지에 이주하여 '스위트 홈'을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해외에서 일본 홈의 정착을 권유하였다. (송혜경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여성의 위상과 식민지주의－조선 간행 일본어 잡지에서의 간사이(韓妻) 등장과 일본어 문학」, 『일본사상』 33, 2017, 참조.)

자 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재조일본인 사회가 가정 단위의 구성으로 바뀌고 있었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까지 임시적인 불안정한 가정 안에서의 폐해는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였다.

> ① 한국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 우리 동포의 가정은 대략 부패, 타락, 불화, 무미, 무정이다. 이는 사회문제 상에서 보아도 또한 한국경영상으로 보아도 실로 우려해야할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우선 재한동포의 부부관계로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 일가를 거느려 가업을 꾸리는 사람의 부부 관계는 법률상의 수속을 거친 자는 드물고 그 대부분은 야합결혼에 의해 만들어진 야합부부이다.32)

> ② 조선뇨보에 대한 가부론은 점점 시끄러운 문제이다. (중략)한사람의 부인을 두면서 공공연하게 첩과 동거하는 것은 사회풍교 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갑자기 고향에서 처가 와서 남편의 생활에 놀라서 몸을 던졌다고 하는 일도 때때로 있다. (중략)또 임신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태어난 아이의 말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33)

위의 인용 ①은 일본 '내지'에서 바라보는 조선의 일본 가정의 상황이다. 조선에서의 이주자 일본인의 부부 관계가 "법률상의 수속을 거친 자는 드물고" 그 대부분이 "야합결혼"에 의해 만들어진 "야합부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임시의 야합부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식민화 초기 단계에서 식민지를 경영하는데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병합된 이후 가정 단위의 이주와 정착이 늘어났음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야합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에서 여성 쪽을 가리키는 '조선뇨보'가 사회풍교 상의 문제시되고 있음이 지적(②)되는 것이다. 식민지 초기부터 시작되어 병합된 이후에도

32) 佐藤千助, 「在韓同胞の家庭」, 『中央公論』 82号, 1905, pp.82-83.
33) 一記者, 「朝鮮女房の研究」, 『朝鮮及満州』 55号, 1912.7.5.

계속 이어진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가정의 불안정과 이로 발생하는 문제는 일본인 사회의 건설을 위해 분명 저해 요소였다. 재조일본인 사회가 식민지 경영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인 가정의 계몽과 개선은 시급한 문제[34]였던 것이다.

또한 가정의 불안은 이주자들 자신들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 생겨나는 식민자 2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는 위의 인용 ①, ②에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야합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생자, 서자"가 되며 그러한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에 "아주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불품행의 아들이 생기고 불품행의 딸이 생"긴다고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의 말로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하여 식민지에서의 식민자 2세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식민자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공고한 식민 지배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식민자 2세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이는 부인방문기에서 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 ① 공기가 거친 식민지에서 자녀의 교육은 상당한 고민거리이다. 남자 아이는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면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여자 아이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경성의 학교는 모두 잘 완비되어 있고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의 폐해로부터 멀어지자, 멀어지자 노력하기 때문인지 아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하는 교풍이다. 게다가 딸아이는 선량함이 결여되어 있고 어딘지 살풍경인 면이 있다. (『공』 1915.7)
>
> ② 아이를 교육할 토지가 아니다. 조선은 관리의 계급에 의해 아이를 대

34) 당시 임시적인 부부관계에서 부인 쪽을 가리키는 간사이(韓妻)는 가정담론의 위배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어 문학의 소재로서 자주 다루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송혜경,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여성의 위상과 식민지주의－조선 간행 일본어 잡지에서의 간사이(韓妻) 등장과 일본어 문학」을 참조할 수 있다.

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아이를 교육하기에 두려워해야할 경향이다. 부형으로 초대를 받아 가면 윗사람에게는 학교 선생이 신발을 모아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공』 1915.6)

③ 자녀의 양육에 고심하고 있다. 아이가 두 명이지만 양육에는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다. 제일 문제는 이곳에 적당한 친구가 없어서 매일 둘이서 놀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유치원도 멀어서 못 가고 있고 자녀를 어떻게 즐겁게 놀게 할까 시종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 1915.7)

위의 인용은 『조선공론』의 여기자가 명사 부인들을 방문해서 수행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이들 부인들의 공통적인 걱정은 식민지 조선 땅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공기가 거친 식민지"에서 "자녀 교육은 상당한 고민거리"였다. 남자아이의 경우는 일본 '내지'로 보내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여자 아이의 경우는 조선의 부모 곁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었다.[35] 그런데 식민지에서의 영향인지 그 딸이 "선량함이 결여되어 있고 어딘 살풍경인 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은 학교에서도 부모 지위의 고하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여 조선을 자녀를 "교육할 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조선에서의 교우 관계 역시문제시하고 있다.

당시 부인방문기에서의 재조일본인 여성들은 대부분 식민지에서의 자녀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가족 동반의 이주자 증가와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증가로 식민자 2세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는 중대한 관심사였다. 따라서 식민지에서의 자녀교

35) 1906년 부산, 1907년 한성, 1908년 인천에 일본인 대상의 고등여학교가 먼저 설립되었는데, 다카사키 소지는 이나바 쓰기오를 인용하여 "대부분의 거류 일본인이 남자 아이는 일본의 중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지만 여자 아이는 가능한 한 집에서 통학시키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카사키 소지 지음, 이규수 옮김, 『식민지조선의 일본인』, 역사비평사, 2006, p.102.)

육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기에 이른다. “내지인 교육방침은 원래 내지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교육의 취지, 수업연한, 교과 편성 등 대체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은 내지와 비교하여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의 덕육에 많은 주의가 필요”[36] 하다고 하고, “식민지에서는 물론 생활의 문제가 제일이기 때문에 교육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크게 잘 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본국정부의 식민에 대한 방침과 일치한 교육”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게다가 “신영토에서 내지인 교육을 등한시했을 때에는 신영토 경영은 도저히 성취될 수 없”[37]다고 하는 자녀교육을 식민지 경영에 있어 절박한 요소로서 상정하고 있었다. 일본 본국에서 떨어져서 식민지에서 성장하는 일본인 아동의 심성적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이다. ‘경성의 일본인 사회와 자녀교육’을 연구한 이동훈은 이러한 일본인 아동 교육이 공론화되는 배경에 “내지를 모르는 아동”의 증가를 들고 있다. 그는 1914년 경성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많은 수의 학생이 “내지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는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의 조사 발표를 근거로 하여 “피지배민과 잡거하는 환경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학교 교육의 근본 취지인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식민지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궁리”[38]하여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국을 모르는 일본인 아동의 증가와 이들 아동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것은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기에 있어 식민권력과 재조일본인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였다. 일본인 사회가 안정되어 가는 시기에 식민지에서의 자녀교육은 앞으로의 식민사회를 지탱하고 조선사회를 이끌어나갈 ‘모범’적인 국민을 양성한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

가정박람회가 개최되는 것과 같은 시기 일본어 잡지에서는 지면에서 펼

36) 弓削幸太郎, 「朝鮮の內地人教育」, 『朝鮮公論』 1914.5.
37) 關屋貞三郎, 「朝鮮に於ける內地人教育に就いて」, 『朝鮮及滿州』, 1912.8.
38) 이동훈, 「‘경성’의 일본인 사회와 자녀교육－통감부 시기와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011.11, pp.125-126.

쳐지는 가정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 가정을 모범으로 재조일본인 부인을 이상으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한일병합 5년의 시점에서 가정 단위의 이주가 증가함에도 여전히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부부관계가 존재하고, 일본인 아이들은 늘어나지만 조선의 분위기에 섞여 '내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또한 심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정박람회와 가정담론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여 영속적이고 공고한 식민지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Ⅴ. 결론

일본에서 '가정'의 등장은 국민국가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였다. 가정은 기존에 가족공동체, 부락공동체의 테두리 안에 있던 국민을 국가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정은 국가의 기초단위가 되어 국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은 가정이 식민지로 이동하여 제국 일본의 팽창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식민권력의 원활한 식민통치와 새로운 식민사회의 형성과 안정에 이용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는 일본에서 메이지 국가 건설에 동원되었던 가정의 역할을 이용하면서 또 당시 가정에 대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사회적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획된 행사였다. 조선의 가정박람회는 식민지 조선인들로 하여금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의 자본과 위력을 확인하게 하는 기회였다. 높은 탑과 한 밤중까지 연일 불을 밝히고 있는 화려한 전등, 비행선의 실체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경탄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한 근대 문물의 이기를 그대로 활용하여 재현하고 있는 일본 가정의 모습은 일본의 발전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시킴으

로써 조선은 계몽, 계량의 대상이 되고 이와 동시에 일본인 사회의 가정과 부인은 '모범'으로서 배워야할 '이상'이 된다. 재조일본인 부인들은 가정박람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며 이상적인 식민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국병합을 한지 5년이 되는 이 시기는 일본인 사회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식민권력에 의한 식민 지배를 돌아보아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의 식민지 경영의 협력자로서 재조일본인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본 가정의 변화가 모색되었다. 특히 1910년대 일본과 조선에 있어 식민지 가정의 불안정과 붕괴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가정에 대한 재정립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의 일본인 아동의 교육은 앞으로의 식민사회를 지탱하고 조선사회를 이끌어나갈 '모범'적인 국민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내지를 모르는 아동이 증가하고 그 심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정에 대한 관심은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가정박람회는 '가정'을 통하여 조선인 사회에 대해서는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확인시키고, 재조일본인에 대해서는 식민지 국가의 기초단위를 견고하게 하는 기회로 이용되었다. 가정이 '정치적 장치'라고 한다면 이후 1920년대와 전쟁기에 있어 식민지 조선에서 또한 재조일본인 사회에서 가정은 어떠한 역할로 활용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논문투고 : 2018. 02. 20, 논문심사완료 : 2018. 04. 05, 게재확정 : 2018. 04. 09)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國民新聞』, 『京城日報』, 『朝鮮』, 『朝鮮公論』, 『朝鮮及滿洲』

2. 참고문헌

김명선, 「1915년 경성 가정박람회 전시주택의 표상」, 『대한건축학회』 28-3, 2012.3.

백지혜, 『스위트 홈의 기원』, 살림출판사, 2005.

양세화 · 유현주 · 온난순, 「일제강점기 가정박람회에 나타난 이상주거」, 『대한가정학회지』 47-1, 2009.

송혜경,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여성의 위상과 식민지주의－조선 간행 일본어 잡지에서의 간사이(韓妻) 등장과 일본어 문학」, 『일본사상』 33, 2017.

_____ · 정병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가족론」, 『일본연구』 21권, 2014.요시미 순야 지음, 이태문 옮김, 『근대의 시선 박람회』, 논형, 2003.

이지영, 「일본에서의 가정개념의 전파－메이지 후기에서 다이쇼까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46, 2010.

이형식, 「경성일보 · 매일신보 사장 시절(1914.8-1918.6)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史叢』 87, 2016.1.

홍선영, 「한 · 일 근대문화 속의 <가정>－1910년대 가정소설, 가정극, 가정박람회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22, 2004.8.

李東勳,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会と植民者社会―「武断政治」下における官民共同の催し」, 『東アジア近代史』 18, 2015.3.

小山静子, 『家庭の生成と女性の国民化』, 勁草書店, 1999.

波形 昭一, 木村 健二, 須永 徳武 『社史で見る日本経済紙 植民地編 第２巻』 ゆまに書房, 2001.

牟田和恵, 『戦略としての家族』, 新曜社, 1996.

山路勝彦, 『近代日本の植民地博覧会』, 風響社, 2008.

• 국문초록 •

본고는 재조일본인 사회에서의 가정 담론의 형성, 확산과 식민지주의와의 관계를, 1915년 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일본에서 '가정'의 등장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은 식민지로 이동하여 제국 일본의 팽창을 견인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식민권력의 원활한 식민통치와 함께 새로운 식민사회의 형성과 안정에 이용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는 일본에서 근대국가 건설에 동원되었던 가정의 역할을 이용하면서 또 한편 당시 가정에 대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사회적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획된 미디어 이벤트였다.

조선에서 개최된 가정박람회는 가정을 통하여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확인하는 장이었다. 근대 문물의 이기를 활용하여 재현하고 있는 일본 가정의 모습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조선의 열악함을 확인하고 조선인들에 대한 제국일본 지배의 정당화를 인식하게 했다. 또한 재조일본인 여성들은 가정박람회의 개최에 대대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상화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된다. 조선에서의 가정박람회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조선 가정의 열악한 상황을 인식시키고 이로써 일본 가정과 부인은 배워야 '모범'으로서 '이상(理想)'화되는 것이다.

한국을 병합한 지 5년이 되는 시기,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고 식민지 경영의 협력자로서 재조일본인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 가정의 변화가 모색되었다. 식민화 초기부터 있어왔던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가정의 모습이 가정단위의 이주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가정에 대한 재정립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의 일본인 아동의 교육은 앞으로의 식민사회를 지탱하고 조선사회를 이끌어나갈 '모범'적인 국민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가정박람회를 통한 가정담론의 확산은 일본인 사회의 안정과 영속적인 식민지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가정박람회, 가정, 가정담론, 식민지주의, 재조일본인 여성, 국민신문, 조선공론, 경성일보

• Abstract •

Dicourse on Home by Japanese Settlers in Chosun and Colonialism

- Focused on Home exhibition held in Chosun -

Song, Hye-kyung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Discouse on Home” and “Japanese Colonization” based on Home exhibition that *Keijyonitposhya* and *Meilshinbo* held in 1915. Home exhibition that was held in Chosun was about a “Home” that was gathered for the Japanese establishment as a modern nation-state and also a media event that reflected the actual viewpoint of a “home” about that time.

The home exhibition held in Chosun was the opportunity for the Colonial Chosun people to realize Japanese capital and power after accomplishing their modernization. The feature of Japanese family by using modern conveniences was a good experience to visually see the development of Japan and its purpose was to make Chosun perceive how Chosun family was living in poor surroundings compared to the one of Japan.

In the fifth year of Japanese colonization, the changes of Japanese “Home” was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the stability of colonization. The unstable features of “Home”, even though family-unit immigration had increased, were an essential task that needed to be improved. The education of Japanese children living in Chosun, at the same time, was very important in order to foster them as exemplary people who will lead the Japanese Colonial. Even though the number of Japanese children in Chosun was increasing, they didn’t have much information about their own country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concerns Japanese government had, Home exhibition was held for the permanent domination of Chosun.

Key word : Dicourse on Home, Home exhibition, Colonialism, *Keijyonitposhya*, Japanese Settlers in Chosun, Female Japanese settlers in Chosun